

【대 담】

전근대 만주사 연구의 현재와 전망

대담: 노기식(제8대 만주학회 회장)

진행: 고명수(만주학회 기획이사)

일시·장소: 2023년 5월 26일(금), 강원대학교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오래 몸담아 오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퇴직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노: 오래 몸담지도 못했습니다.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 창립 때부터 2018년까지 14년 남짓 근무했습니다. 연구자 정년은 65세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연구 행정원이니 60세까지만 일하시오”라고 해서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정년을 채운답시고 5년째 개인 공부방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몇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이전에 두 선생님과 함께 번역한 『만주원류고』 원고를 1년 넘게 다듬어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강사법 시행 후 강의를 맡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에 신청했더니 선정되었습니다. 주제는 「후금 천총 연간의 무관제 개혁」과 「후금 천총 연간의 화의」입니다. 연구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에 몇몇 연구자들과 함께 만주어 사료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만주학회 명의로 ‘역사 연구자를 위한 만문사료 강독’을 진행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만문사료연구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만문사료를 읽고 있습니다. 『청어노걸대』, 『어문청정』, 『만주실록』, 『강희주비주점』, 『내국사원당 천총 7년』 등을 읽었고, 현재 『천총 8년』을 읽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어떻게 남은 세월을 잘 활용할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귀향을 생각하고 있고, ‘뭘 하고 놀면 즐거울까’를 궁리하고 있

습니다.

고: 선생님께서 오래도록 청대 만주 역사를 연구하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선생님의 주요 연구업적과 의미를 말씀해주십시오.

노: 오래 연구하지도 못했고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석박사 과정과 재단에 근무하기 전까지 조금 공부했을 따름입니다. 1985년 대학원에 들어갔고, 2004년 재단에 들어갔으니 그래도 한 20년 연구했네요. 입관 전 만주, 즉 누르하치 천명 연간과 홍타이지 천총·승덕 연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988년 석사논문으로 「누르하치시기 암반의 무관조직화 과정」, 1999년 박사논문으로 「후금시기 만주와 몽고 관계 연구」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각종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했습니다. 출판된 몇몇 번역서와 논저에 공저자·공역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들어간 후 업무에 매달리게 되어 개인의 연구관심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보다 나이가 많아 연구실장이나 연구소장과 같은 이러저러한 보직을 맡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 선생님께서는 40여 년 전부터 청대 만주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그때 국내 동양사 연구가 대체로 중국사에 치중되었으므로 만주를 포함한 북아시아사 연구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청대 만주 역사 연구를 결심하게 된 이유, 계기가 무엇입니까?

노: 1980년대 국내 명청사 학계에서는 사회경제사 연구가 주도적이었습니다. 명청사학회가 결성되어 매월 두 차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사회경제사 관련 사료를 윤독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진·만주 분야 연구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진이나 만주, 그들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몇 분 계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 대학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사학과에서 중국사 중심에서 벗어

나 연구 영역을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동남아, 일본사 전공자가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대학원 정원도 늘어나,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다양한 전공을 개척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처음에 중국 근대사에 관심을 가졌다가 지도교수의 권유에 따라 청대 중기로, 다시 입관 전으로 관심을 옮겼습니다. 쉽지 않은 분야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원 4학기가 지나서 입관 전 만주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사과정을 다시 시작한 셈이었지요. 서울대 언어학과에 개설된 만주어 강의를 청강하고, 일역본 『만문노당』을 복사해 읽고, 일본학계의 후금 관련 논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써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후금이 요동에 진출한 후 시행한 계정수전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던 김두현 선생님이 당시 유일한 동학이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였습니다. 요즘 청대사 특히 만주 관련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줄은 당시에 상상도 못 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고: 근래 20여 년간 세계 중국사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와 논쟁이 이루어진 시대사 분야는 청대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만주족 중심으로 청대사를 조망하는 신청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에서 전통적인 한족 중심 관점으로 청대사를 해석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사공정이 20여 년간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의 출간이 임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날 청대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 한국 학계의 청대사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노: 청대사 전반에 대한 연구 현황을 논평하고 전망할 만한 내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학계의 신청사 연구나 이에 대한 중국학계의 반발 등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이 많이 소개해주었고, 『만주연구』에도 소개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의 청사공정에 대해서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기획연구를 통해 분석한 책을 몇 권 출간했습니다. 우리 학계가 청대사 연구를 비교적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선진학계의 연구 동향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진학계의 연구성과를 재빨리 흡수하고 우리 나름의 연구성과를 축적해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동안 국내 연구자들이 일본학계의 명칭 사회경제사 연구성과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청사의 연구 경향을 받아들여서 인지 만주어 사료를 이용한 청대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선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독창성이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전의 사회경제사 연구의 전통 위에 새로운 만주 연구 성과를 축적하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학계의 만주학 연구는 괄목할 만합니다. 우선 고려대 만주학센터가 설립되어 여러 연구활동 성과를 생산했습니다. 『만주어사전』을 편찬하고, 서울대 언어학과와 『만문노당』의 태조·태종 시기를 분담해 번역·출간했습니다. 아울러 논저 번역과 논문 발표 등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만주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중국에서 만주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신진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연구자들이 만문 사료를 활용하여 논문을 쓰는 것도 새로운 현상입니다. 몽골을 비롯한 북방민족 관련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신진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학계가 만주를 비롯한 북방민족 역사 연구에서 선두권에 진입하는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저는 한국 학계의 청대사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만한 식견이 없습니다만 아직은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역량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학계와의 학술적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술 성과를 번역·출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외국 성과를 신속하게 흡수하고 사료를 정리·해독·분석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 다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만주는 지정학적으로

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했고, 토착 종족들도 때때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해 동아시아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만주는 '동아시아 변동의 핵'이라 부를 만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주 역사를 깊이 연구한 선생님께서는 만주에 관해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남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주라는 공간과 종족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갖는 의미,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노: 만주가 '동아시아 변동의 핵'이라는 슬로건은 학회가 결성된 직후 처음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내건 것입니다. 주로 만주국 시기를 연구하던 만주사연구회가 만주학회로 확대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회의 연구 방향을 나타내는 슬로건으로 토론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주를 중국·일본·한국 등 각국의 변방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교차점 내지 각국에 둘러싸인 중심으로 보자는 주장입니다. 러시아를 포함하면 세계사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점을 넓혀 만주사를 통시대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만주국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전 근대와 전근대, 나아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만주가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시각을 적용해 보자는 원대한 발상입니다. 그러한 시각 아래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지금도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 학회의 내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만주학회에 너무 다양한 학문 분야가 뒤섞여 있어 어지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주를 동아시아 각국의 교차점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의 중심으로, 고대부터 현재·미래까지 통시적으로,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연구하겠다는 학회 창립 당시의 의도를 아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근대 만주에 대해서만 제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사용하는 '만주'라는 용어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만추스(manchus)와 만추리아(manchuria) 즉 만주 사람과 만주 땅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부합하는 시기는 만추스가 만추리아에서 활동했던 입관 전뿐입니다. 그 외에는 만추리아에서 여러 민족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주처럼 정복왕조를 이룩한 민족을 포함하여 만

추리아에서 활동했던 모든 북방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 용어로 '만주'를 써도 좋습니다. 그러한 북방민족들의 최후 민족명인 썬이지요. 지금 만추리아는 중국령, 러시아령, 몽골령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만추리아'라는 지역명은 광의의 만주족 즉 북방민족이 활동했던 지역을 지칭하는 상징적 용어로 사용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만주학회는 지역적으로 중국 동북뿐 아니라 몽골, 위구르, 티벳, 중앙아시아, 연해주, 사할린, 민족적으로 흑룡강의 소수민족, 극동 러시아의 여러 민족, 그곳에 사는 중국인, 러시아인, 조선족과 카레이스키를 연구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추스'와 '만추리아'의 범위를 가급적 확장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동아시아사에서 북방민족의 활동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인정합니다. 몇 년 전 교육부가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창설을 추진할 때 대륙·해양·초원 문화로 동아시아 역사 전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서술상 한계에 부딪혀 현재의 동아시아사 모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만주를 포함한 북방민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알면서도 설명하기에 아직 연구와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탐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므로 남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언뜻 한족 국가와 한반도 국가의 조공책봉이 북방민족에 대응하기 위한 연맹이고, 근현대에 북방민족 대신 일본과 러시아가 그 공백을 파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주는 근대 제국주의 세력의 각축장이었고, 현재에도 남·북한과 미·중·러·일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통사적 시각, 동아시아적 시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만주학회는 만주국 시기만을 연구하는 초기의 상황으로 환원됩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만주국 시기만으로도 훨씬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 동아시아 역사에서 만주는 지정학적 위치, 자연지리, 토착종족, 역사경험 측면에서 중국, 몽골, 한반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주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그러한 특성에 걸맞은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 만주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 중요성이 널리 공유됨으로써 만주에 관심 갖거나 직접 탐구하는 신진 연구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선생님께서 만주역사 연구에 필요한 관점, 방법, 사료의 활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 전근대에 한정해서 몇 가지 고려할 만한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만주 민족과 지역 자체가 갖는 특수성 또는 독자적 역사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컨대 ‘유목 사회와 수렵·채취 사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등입니다. 둘째, 만주 민족과 지역이 북방민족사에서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컨대 ‘북방세계의 패권이 몽골에서 만주로, 유목 사회에서 수렵·채취 사회로 또 그 역으로 왕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등입니다. 셋째, 만주족과 한족의 관계입니다. 북방민족 사회 변화의 주요인으로 한족 국가와의 관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학계만의 관심일지도 모르지만 동아시아사 속에서 만주와 한반도의 관계 양상입니다.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족 국가와 한반도 국가의 조공책봉 관계의 목적이 북방민족에 대한 공동 방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대에는 동진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주 지역과 민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한문 사료로서 중원 국가의 사료 외에도 고려, 조선의 사료(실록, 연행록, 문집, 일기 등)를 다루어야 합니다. 거란어, 여진어, 몽골어, 만주어 등 북방민족 언어의 습득도 필요합니다. 지리적 이점을 살린 학술답사도 주요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려·발해 분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학술답사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북방사 연구에서도 학술답사 연구 방법이 활성화되면 많은 성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오늘날 학계에서 만주의 역사적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동아시아 변방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만주가 중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므로 만주 역사를 중국사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연구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향후 만주 역사 연구

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 만주가 변방이라는 것은 동아시아의 변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방은 중국의 동북, 일본의 식민지 만주국, 한반도의 독립운동 기지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각국의 관점에서 보면 만주는 변방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관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주를 동아시아 관점으로 보면 각국의 관심이 마주치는 교차점, 세력이 부딪히는 격전장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주사를 중국 지배하의 소수민족사로 축소했을 때 동아시아사에서 북방민족의 역사상은 소멸해 버립니다. 중국학계가 만주 민족과 지역이 예부터 중국사의 일부였다는 고정된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스스로 한계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통사적 시각입니다. 전근대와 근현대를 동아시아라는 넓은 시각에서 통시대적으로 조망할 때 각 시대마다 만주가 가졌던 역할과 위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현재와 미래의 동아시아에도 투영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통일다민족국가론 시각에서 만주를 보는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갖고 연구하면 됩니다.

고: 만주와 한국의 연관성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가 인접해 있으므로 만주가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의 일부인 고구려, 발해가 만주에 존재했고, 거란, 청과 같은 만주 국가가 한국을 침공한 정도 외에 그 구체적인 관계 양상, 의미, 성격에 대해 전공자가 아니라면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 역사상 만주와 한국의 관계, 한국사에서 만주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노: 북방민족의 통합과 분산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북방민족의 통합과 분산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북방민족과 한족 정권의 관계는 어떠한가? 한반도 국가와 한족 국가의 조공책봉 관계가 북방민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중원의 상황 변화가 한반도 국가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등등 한국사에서 만주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는 많습니다. 즉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으나 한족 국가, 북방민족 국가, 한반도 국가 사이에 어떤 관

연성이 존재하는지, 어떤 관계 패턴이 존재하는지 탐구해볼 문제입니다. 통상 조선의 전·후기는 왜란·호란의 전후로 구분됩니다. 저는 조선 전·후기의 가장 큰 차이가 '국방상 압록·두만강 너머에 방어해야 할 적이 존재하는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조선 전·후기를 구분하는 데 북방민족의 존재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깊이 탐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 역사상 만주와 한국이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한국사에서 만주가 갖는 의미가 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만주 역사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 필요성,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양자의 긴밀한 관련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만주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타국의 만주 연구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주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장점이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노: 만주를 연구하는 한·중·일 학계의 전통적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중국의 만주(동북) 또는 소수민족에 대한 시각, 일본의 만주국에 대한 시각, 한국의 오랑캐, '만주는 우리 땅'과 같은 시각이 모두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러시아도 만주를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국학계는 중국의 소수민족 시각, 통일적다민족론 시각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랑캐, 만주는 우리 땅, 만주는 독립군의 활동무대이고 조선족만 살고 있다는 듯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사 연구 현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피상적인 인상만 언급하겠습니다. 한국사에서 북방민족이나 북방지역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대외항쟁사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지 않은가?' '한족 국가와의 조공책봉 관계는 무슨 목적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등과 같은 문제를 북방민족의 존재와 관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주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많은 관련 사료가 한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 사료보다 만주를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중국 사료에 없는 귀중한 내용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정리·분석하여 '조선 전·후기를 구분하는 데 여진과 만주의 존재가 어떻게

작용했는가?’와 같은 문제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심양 일기』, 『심양장계』, 각종 연행록 등 수많은 조선 측 사료가 아직도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만문 사료에 접근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만주어와 한국어의 친근성 때문입니다. 만주어 연구의 역사도 사실상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미국학계에서 만문 사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한 연구는 곧 세계 선진학계에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문 사료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으니 천착하다 보면 독보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답사 조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물론 중국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국난 극복사에 나오는 북방민족 서술을 넘어서는 북방민족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한반도를 침공했던 북방민족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북방민족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중국 24사 북방민족 열전을 번역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북방사연구실을 만들었다가 아마도 할 일이 없으니 한중관계사연구실로 전환한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할 일이 없겠어요? 북방사 연구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북방민족의 역사를 한중관계사 속에 밀어 넣으면 고구려를 중국사에서 구해내지 못합니다. 만추리아, 몽골리아, 티벳, 위구르에 존재했던 민족들의 역사를 중국사에서 독립시켜야 고구려·발해 역사가도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고: 만주학회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만주 역사에서 한·중 학계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여러 역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ex. 동북공정, 간도·조선족 귀속 문제 등). 이는 단순히 학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양국의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만주 역사에 관해 민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주학회가 어떠한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노: 한중간에 이른바 역사 분쟁이 존재합니다. 외교 사안이 되었을 때 외교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외교적으로 대응합니다. 역사현안 문제에 대해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가 있다면 만주학회는 가급적 그들의 주도에 협조하면 되겠습니다. 특정 문제를 다룰 학회가 없다면 만주학회가 나서서 연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학회들이 주로 한국사에 관한 문제에에만 집중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술적 대응의 한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주학회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해당 문제를 연구하면 관련 학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 선생님께서는 만주학회 창립에 기여하시고 8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따라서 학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장 재임 시 학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노: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학회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2014년 중국 북경으로 파견 가서 전화로 이사들과 업무를 처리했

던 일입니다. 그때 총무가 지금 학회에 안 나오지만 좀 고집이 있는 분이라 애먹었던 것도 생각납니다. 학술회의 회장 인사말을 오늘처럼 부회장 임성모 선생님께 맡겼는데 마침 임선생님도 일본에 가게 되어 2014년 후반기에 회장, 부회장이 모두 국내에 부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총무가 회장 대리를 선출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구성원들이 모두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회에 대한 옛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경 제가 막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처음 만주사연구회 분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김기훈, 한석정, 윤휘탁, 박선영, 임성모 선생 등이 회원이었습니다. 만주국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던 만주사연구회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명청사연구회에서 만주 문제는 관심 밖이라 같이 뭘 논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두현 선생이 유일한 입관 전 만주사 연구자였으나 울산대에 부임한 후 명청사연구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주방팔기제로 학위를 받고 돌아와 한양대에 재직하신 임계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관심을 홍콩, 조선족 등 현재적 이슈로 옮기셔서 입관 전 만주사로 협력하기 어려웠습니다. 뭘가 만주 연구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내 나름대로 북방사, 북방민족사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하여 'N 프로젝트'. 만주연구회원들과 미팅에서 중국의 동북, 일본의 식민지 만주국, 조선의 독립운동 기지로서 만주를 연구하는 것은 변방사, 식민지사일 뿐이다. 동아시아의 중심지로서,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의 핵으로서 만주를 연구해야 학계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아직 동아시아사가 주목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학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북아시아, 북방사, 만주사 등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만주'가 중국에서 만주국에 대한 기억 때문에 기피하는 말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만주 그 자체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결국 만주학회로 결정했습니다. 학회 창립 직후 총무 등 임원으로 학회 일을 맡아 김기훈, 한석정, 서정흠 세 분의 회장님을 도왔습니다. 김기훈 선생님은 두 번, 한석정 선생님은 세 번씩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학회 창립

초창기 체제를 갖추기 위해 여러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신입회원을 모집·관리하고, 학술회의를 기획·진행하고, 학술지를 창간하고 정기적으로 발간했습니다. 무엇보다 학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어려웠던 일은 재정 확보였습니다. 당시 소수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는 학회 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학술회의 개최 대학의 지원 제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회의 개최와 학술지 발간 지원 제도, 동북아역사재단의 학술회의 개최와 연구과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때 지원금으로 학술회의 발표자들에게 발표비를 지급하고 바로 다시 평생회원 회비로 납부하게 하여 비용을 충당했던 일은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회에서 초기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분들에게 그만한 예우를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의 호의에 보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 일 년에 두세 번씩 학술회의 개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 학술지를 창간했습니다. 학술회의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으므로 계속 평생회원 제도를 통해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발간 호수가 쌓이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학회 연구 분야에서 지역학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만주학회는 사회과학 및 지역학 분야에 신청했습니다. 또 신생·소외분야 지원 제도가 생기자, 거기에도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비용도 일반지원보다 열 배 정도 많았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년간 학회장을 맡았습니다. 역시 학회에서 회장이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학술회의 개최와 학술지 발간입니다.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쳐 등재지에 선정되고, 재차 신생·소외 학술지 발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학술회의 지원도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모두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부회장 임성모, 편집위원장 이동진, 이사 한성주 선생님의 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역사학대회 자유 패널로 참가하고 여름방학에 만주지역(대련·여순·영구) 학술답사도 진행했습니다.

고: 앞으로 만주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여 만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접근하고, 한국만의 독창적인 만주학 위상을 만들어 달라는 변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근대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와 인접한 지역과 민족 연구에서 우리 학계가 보유한 여러 장점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세계학계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사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동연구과제 수행이 학회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나아가 단행본으로 발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연구 수행은 외국 학계와의 교류, 현지답사를 추진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 학술기관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료를 함께 읽는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문 사료든 만주 사료든 우리가 해독하기 버거운 문헌 자료입니다. 공동으로 사료를 강독하는 모임을 운용하여 선학자가 후학자를 인도하고 학술적 문제에 관해 함께 토론하는 모임을 지속하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만주어에 관심을 갖는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주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학문 분야가 모인 학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학제 간 연구의 모범 학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고: 이제 대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계의 원로이자 만주역사 연구의 권위자로서 만주를 연구하는 후학에게 바라는 점, 해주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 별 말할 내용도 없으면서 오늘 대답에 응한 것은 만주학회에서 전근대 부분의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문학과 사회학 분야의 걸출한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서 오는 전근대 분야의 상대적 위축감이 느껴졌습니다. 최근 현대사 전공자들이 연달아 회장을 맡으면서 전근대 전공자의 활동이 더욱 위축된 듯합니다. 다행히 이번 학술회의에 전근대 발표자가 다수 포함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근대 분야 활동의 가장 든든한

무대인 강원대에서 개최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사와 함께 공동 협업하여 연구하기를 당부합니다. 전근대 북방민족사 연구는 다른 주제에 비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연구자 스스로 학계에서 강조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요. 연구자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이런 작업을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몽골에 관해서는 30년 전에 비해 연구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했던 외국에서 공부했던 몽골사를 연구하여 취업한 사례가 많습니다. 입관 전 만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문과 중국어에 만주어 구사 능력까지 갖추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사 전공자 중 북방민족 관계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북방민족 언어도 공부하면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연구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글감을 찾아 뿔 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극복할까요? 만주학회에 모여 토론하면서 연구주제도 개발하고 사료도 공동으로 탐구하세요. 외국성과 흡수, 학술답사, 외국학계와 교류 등을 통해 한국 만주학의 위상을 제고하여 세계 학계에서 확고하게 정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뭐 할래요? 연구자로서 두뇌 활동은 더 나아질 리 없으니 멀리서 후배들의 학문 활동을 감탄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못다한 숙제를 마무리하고 혹시 여력이 있으면 간간히 책을 펴보고 의문 사항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래도 머리 쓰는 일보다 손발 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듯합니다. 그것이 즐거운 삶을 유지하는 방법일 듯합니다. 귀향하여 소박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테니 혹시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면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원대 사학과에 감사드리려 합니다. 아마도 만주학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준 곳은 강원대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대개 회장이 소속된 학교에서 학술회의를 억지로 맡아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대는 그렇게 학술회의 개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현, 한성주, 거란사 전공 교수 등 사학과 선생님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그 이전에 몽골사에 대한 관심, 동남아사에 대한 관심, 일본사에 대한 관심 등 중국사에만 치중되지 않

은 시각을 견지했던 강원대 사학과와 성향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현재 정병진, 김윤순 박사가 열심히 만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몽고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문도 있습니다. 94년에 제가 요녕대학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강원대학이 요녕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인적 교류를 하여 정외과 교수와 한문학 전공 교수가 한 학기 파견되어 머물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대학에는 사학과뿐 아니라 학교 전체에 만주에 대한 관심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지원해준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만주 문제를 중점 과제로 채택하여 연구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이 만주학회에 베풀어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에서 큰 성취 이룩기를 기원합니다.

고: 이제까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학문적 내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담이 자신의 학문과 학회의 미래에 관해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학회의 어른으로서 오래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